


[제 2024-31 호]

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	보 도 자 료		<i>다시,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</i>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총 3쪽
배포일시	2024.04.23	담당부서	영화
연락처	323-936-7141(x111) hayoung@kccla.org	담당자	Hayoung Kim

LA한국문화원, 애니메이션 '소중한 날의 꿈' 상영회 개최

-5.8(수) 7시 문화원에서 한국단편문학 애니메이션 마지막 시리즈 진행



모두가 아이였던 이들과 아이들의 소중한 날의 꿈

안재훈 감독

5.8(Wed) 7PM

소중한 날의 꿈 (Green Days)

Ari Hall(3F), Korean Cultural Center
5505 Wilshire Blvd, Los Angeles, CA 90036

▶ 행사명 : 한국 단편문학 애니메이션 시리즈: 안재훈 감독 영화 상영회

-
- ▶ 일시 : 2024.05.08(수) 7pm
 - ▶ 장소 : LA한국문화원 3층 아리홀
 - ▶ 주최 : LA한국문화원
 - ▶ 첨부자료 : 프로그램, 사진
 - ▶ 행사문의 : LA한국문화원 323-936-7141(x111) 영화/문화산업 Hayoung Kim
-

LA 한국문화원(원장 정상원)이 5.8(수) 저녁 7 시 문화원 아리홀에서 ‘한국 단편문학 애니메이션 시리즈: 안재훈 감독 영화 상영회’의 마지막 작품인 <소중한 날의 꿈>을 상영한다.

2011 년 개봉한 애니메이션 <소중한 날의 꿈>은 1970 년대를 배경으로 제작된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로 ‘꿈의 도전과 본질, 실패와 두려움을 극복해 내는 용기’를 작품에 담아내어 당시 청소년과 어른 등 다양한 세대의 공감을 불러 일으켰었다. 2010 년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 앵글 부문에 초청된 <소중한 날의 꿈>은 한국 애니메이션의 수준을 높이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았으며, 배우 오연서, 박신혜, 송창의가 목소리 출연을 하여 화제가 된 바 있다.

문화원은 지난 3 월 초부터 김동리 작가의 <무녀도>를 시작으로, 황순원 작가의 <소나기>, 김유정 작가와 현진건 작가의 <메밀꽃 필 무렵, 운수 좋은 날, 봄봄> 등 주옥 같은 한국 단편소설을 안재훈 감독만의 따뜻하고 정감있는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영화를 소개해 왔다.

특히 안재훈 감독은 “한국을 담은 이번 애니메이션 상영회를 통해 수많은 관객을

만났고, 한글로 쓰인 우리의 문학을 통해 그 안에 담긴 사람과 풍경, 그리고 이야기를 보았던 관객 분들의 눈빛을 앞으로도 잊지 못할 것이다. 이번 상영회는 미국 내에서 ‘K-문화’로 불리는 관심의 폭을 애니메이션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어주었다고 생각한다. 언젠가 이 씨앗이 자라나 한국 애니메이션으로 한국의 사람과 문화를 더욱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”라며 LA 교민과 현지 관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 왔다.

앞으로도 문화원은 한국 고유의 정서와 문화를 잘 담은 다양한 영화 작품들을 현지에 소개하는 상영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 5월 8일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<소중한 날의 꿈> 상영회는 무료이며 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을 신청하면 된다. /끝/